근기 맞춘 부처님 대기설법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㊶ 원각경 4

〈원각경〉에서는 열두 보살이 부처님과 문답(問答)을 통해 원각수행의 방편점차(方便漸次)를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 또한 서품장(序品章)과 열두 보살장(章)을 합해 총 13장(章)으로 구성돼 있다. 원각경의 큰 줄거리를 보면 먼저 경(經)이 설해진 계기를 밝힌 서품장에 이어 문수사리보살장은 신해문(信解門)에 의거 '대(大)'를 밝힌 것이고, 보현보살장으로부터 정제업장보살장까지 8장은 자리문(自利門)에 의거 '방(方)'을 밝힌 것이며, 보각보살장은 이타문(利他門)에 의거 '광(廣)'을 밝힌 것이고, 원각보살장은 증화구경문(證化究竟)에 의거 '원(圓)'을 밝힌 것이며, 이들 모두는 또한 '각(覺)'을 밝힌 것이어서 경의 내용이 이름에 그대로 요약돼 있다.

보현보살장과 보안보살장은 상근기, 금강장보살장과 정제업장보살장까지의 6장은 중근기 보각보살장과 원각보살장은 하근기를 위한 내용으로 각각 상세한 수행법을 알리고 있다. 마지막장인 현선수보살장은 유통분(流通分)에 해당한다.

처음으로 나오는 문수보살은 보살 가운데 으뜸으로서 특히 지혜가 제일 뛰어나며 부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중생에 필요하고 유익한 법문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보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분류로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 수행자 신분을 나타낸다. 대승불교에서는 성불하고자 더불어 수행하는 수많은 대중이 모두 보살이기에 이들 중에 이미 성불한 경지에서 중생으로 화현해 대중교화를 하는 이들이 있다. 문수보살도 이중 하나다.

문수보살은 스스로의 법력과 원력에 의해 중생세계에 자유자재로 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경을 설하는 회상의 십만여 대중이 모두 보살들이라고 한다. 이는 문수보살이 후세 대중을 위해 부처님과 함께 펼친 아름다운 진리의 향연임을 뜻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출생해 중생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본다. 화신(化身)이자 죽음과 오고 감이 없는 법신(法身), 보신(報身)으로서 삼신불(三身佛)로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사적 출현은 본래 성불한 부처님이 중생 근기에 맞게 보여준 교화방편인 것이다. 원각에서의 부처님은 이러한 초월한 모습이 잘 나타난다.

원각경에서 첫 번째 질문은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 수행하셨던 올바른 방법과, 이어서 대승을 구하는 이들이 사견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친절하고 간결하다. 위없는 진리의 왕이신 부처님은 '원각'이라고 이름붙인 큰 법문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진리(진여)와 깨달음(보리), 평화(열반)와 완성(바라밀)의 법을 내어 보살을 가르치신다.

모든 부처님은 처음 수행하려 할 때, 원만하고 청정한 깨침의 모습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無明) 곧 무지(無知)를 타파하고 성불하신다고 한다.

원만하고 청정한 깨침의 모습은 허공과 같은 모습이다. 곧 '원각'이 부처님 수행의 처음과 끝인 것이다.

무명을 타파하여 원각을 이루고 보면, 생사윤회조차 허공의 꽃과 같았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들은 이러한 무명의 본질과 속성을 바로 보아 청정한 마음을 내고, 말세의 중생들도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어리석은 사견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정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보게 되고 알게 되니 업보 업장이 사라졌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㊵ 전생의 원인 결과를 알게 되는 수행여정

부처님께 부지런히 바치면서 내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 동시에 어머니 역시 아들에게 매달리는 마음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맺은 업보의 해탈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나는 무슨 인연을 맺었기에 그렇게 불쌍하고 애절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전생에 맺은 인연은 과연 무엇인가? 어머니를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해진 어느 날, 검은 고양이를 꿈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어째서 검은 고양이가 보일까? 무슨 뜻일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꿈은 아닐까?

그 검은 고양이 꿈의 뜻을 모른다는 생각도 정성껏 부처님께 바치면 그 뜻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 당시 내 공부 정도로는 그 검은 고양이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지식께서 금강산에서 수도하시던 중 체험하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일제에서 해방의 희망을 가지고 금강산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홀연히 한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분명히 해방되었다고는 했는데 서울은 동경에 매어 있고, 평양은 아득한 북쪽 어디쯤에 매어 있는 장면이었다. 어째서 서울과 평양이 서로 다른 곳에 매어 있을까?

그러나 더 이상은 알 수 없었다. 해방이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은 그 광경을 보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였다.

수행과 기도를 계속해 나가며 마음속에 탐심, 진심 그리고 치심이 점차 소멸되자 비로소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때가 해방되기 10년 전이었다.

1945년 8월, 서울이 동경에 매인 것은 맥아더 사령부가 동경에 있기 때문이었고, 평양이 북쪽 어디엔가 매인 것은 평양이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씀처럼 꿈속에 보이는 검은 고양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것은, 해방이 되었는데 서울이 동경에 매인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꿈에 본 검은 고양이를 생각하며 계속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자 검은 고양이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때에 선지식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전생에 절간에서 만난 인연으로, 실은 너의 상좌였다. 제자인 어머니에게 물건 관리를 맡겼는데 어머니의 손버릇이 시원치 않아 어머니인 상좌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관찰하고 종종 의심하였던 것이다. 남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바로 고양이 마음이요, 그런 마음의 연습은 고양이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너는 전생에 어머니를 의심하고 간섭하나 연고로 사람 몸을 잃어버리고 고양이 몸을 받게 된 것이었다.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동반되었기에 고양이의 몸의 색깔이 검은 것이었다.

네가 금생에 어째서 너의 어머니 집에 태어난 줄 아느냐? 바로 전생에 가졌던 어머니에 대한 허물을 꾸짖기 위해 그 집에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어머니의 말에 톡톡 쏘는 기질이 있었다."

"꿈속의 검은 고양이는 전생 어느 때인가 너와 너의 어머니가 맺은 업보의 모습인데, 그 업보의 모습을 보는 것은 고인(古人)은 각지즉실(覺之卽失)이라 하였다. 즉 보게 되고 알게 되니 업보 업장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네가 어머니와 맺은 업보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 너의 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생각, 즉 애정이 어느 정도 해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쌍한 그 마음을 좀 더 정성껏 잘 바친다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까지 상세히 알게 돼 어머니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알아지는 이 현상, 그것을 지혜라 한다."

확실히는 몰라도 어머니와 맺은 전생의 인연을 대충 알게 된 셈입니다.

지금은 매우 어설프게 아는 정도이지만, 더욱 철저하게 바치는 연습을 한다면 모든 것을 확실히 규명하고, 잘하면 나와 같은 못난이도 도인의 반열에 올라설 수도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아이고, 아이고! '이뭣고?'

반산보적(盤山寶積)(마조도일의 제자) 선사가 걸음걸음 화두를 놓치지 않고 시장을 지나가다가 식육점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와서 말했다.

"깨끗한 고기 한 근만 주시오?"

주인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려 놓고 양손을 모으고 차수(叉手)하면서 말했다.

"어떤 것이 깨끗하지 못한 고기입니까?"

깨끗함과 더러움, 옳고 그름, 선과 악등의 범부와 성인, 부처와 중생이라는 모든 차별상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광경이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보적 스님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후 어느날 마을 동구 밖을 지나가다가 상여꾼들을 만나게 됐는데, 요령을 흔들면서 소리 하기를 "청천(靑天)의 붉은 수레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건만, 알지 못하겠구나, 오늘의 이 영혼(靈魂)은 어디로 가는고?"라고 하니

뒤따르던 상주들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였다. 보적 선사가 이 곡(哭) 하는 소리에 확철히 깨닫고, 그 길로 마조 선사를 찾아가 인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

보적 선사의 전(前)과 후(後)의 깨달음이 각기 어떤 경지인가? 이는 향상일구(向上一句)의 기틀을 갖춰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이다.

향상일로천성불전(向上一路千聖不傳) 학자노형원착영(學者勞形如猿捉影)이라는 말이 있다.

"향상의 일로는 일천 성인도 전하지 못하시거늘 학자들이 공연히 애씀이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죽음이란 모든 형상(形相)에는 자체성(自體性)이 없어 상대성인 몸뚱이라는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상대성(相對性)은 연기법(緣起法)으로 절대성(絶對性)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 지는 것이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가 이 색신의 혓바닥을 굴려서 "아이고" 하는 것인데, 그럼 "아이고" 하는 이놈은 누구일까?

그래서 '이 뭣고'이며, 상주가 "아이고, 아이고" 라고 하는 순수하고 맑고 청정한 자성(自性)자리는 광활한 시방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가 곧 당금(當今)이며 가고 오고가 없는 역천겁이불고(歷千劫而不古) 항만세이장금(恒萬世而長今)이라, 찰라가 불생불멸(佛生不滅)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인 내 고향인 '이 뭣고'인 것이다.

보적 선사의 오도송은 다음과 같다.

심월고원(心月孤圓) 광탄만상(光呑萬像) 광비조경(光非照境) 경역비존(境亦非存) 광경구망(光境俱亡) 부시하물(復是何物)이라고 했다.

"마음달 홀로 둥글어 그 빛이 삼라만상을 삼키도다. 광명(光明)이 경계(境界)를 비추지 않고 경계 역시 있는 것이 아니니, 광명과 경계가 모두 없어지니 다시 이 무슨 물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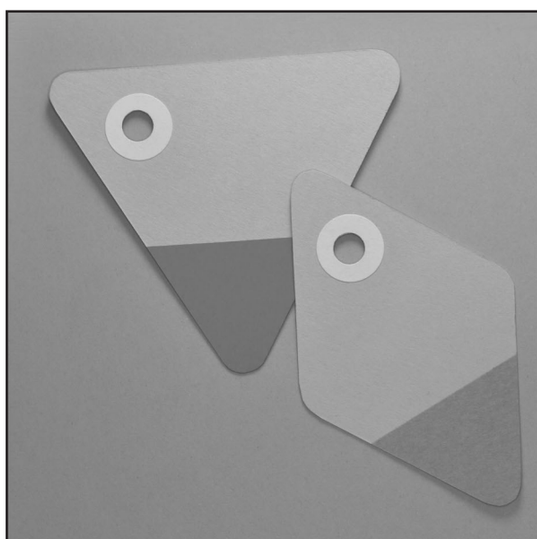
이 마음의 달(月) 하나가 둥글게 떠 있어 그 빛이 천지만물(天地萬物)을 다 머금어 하나가 되나, 그 하나마저 없어진 경계이다.

경허 선사와 만공 스님의 선문답(禪問答) 향상일구(向上一句:깨달음의 한마디)는 경허 선사의 진면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경허 선사가 만공 스님에게 너는 술이나 파전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만공 스님은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굳이 먹으려 하지 않지만 생기면 또 굳이 먹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고 하니 선사가 대견한 듯 보다가 그래, 참으로 너의 도력(道力)은 대단하지만 나는 너만큼 도력이 없어서, 술이나 파전을 먹고 싶으면 참을성이 없다고 말했다.

"밭을 정성스럽게 갈고 거름을 주고는 좋은 밀씨와 파씨와 깨씨를 구해다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알뜰이 키워서 밀로 누룩을 만들고 깨로 기름을 짜고 밀가루와 파를 버무려서 맛있는 파전을 만들어 술과 함께 맛있게 먹겠네"라고 하시자, 그 말을 들은 만공 스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기봉 전통 범패 의식 강원

전통 불교의식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식 전문 학인을 모집합니다.

◆ 응 시 자 격 ◆

① 입 학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생(음악,국악과) 등 일반
② 제 출 서 류 : 본 강원 소정양식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사본, 해당자)
③ 전 형 일 정 : 2019년 1월 8일까지
④ 개강 기초반 : 2019년 1월 8일 (매주 화요일)
⑤ 상주 권공 : 2019년 1월 11일 (매주 금요일)
⑥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⑦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대흥로 26번지 대은사

※상 담 문 의 : 010-9170-3631

법고무 특강

개 강 | 2018년 11월 19일 (매주 월요일) ~ 2019년 1월 28일 까지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까지
지도 강사 | 기봉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 조교)